



# 인간의 벽 허물고 마음의 평화를

## 전체토론

▲솔락 시바락사는 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욕심을 자비로 마음을 베풀고 바꾸는 것이라고 말했다. 개인적인 변화를 포함해 이에 대한 설명을 부탁한다.

(솔락 시바락사) 우리가 생각하고 행동을 너무 많이 하고 있지 않냐가 생각해야 한다. 적절하게 숨쉬는 게 중요하다. 깊게 호흡하면 분노가 사라진다.

(데이비드 채플) 내적으로 호흡하는 것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함께 호흡하는 것도 중요하다. 메타(자비)를 통해 다른 사람들과 호흡해 서로의 상관관계를 인식해야 한다. 친구가 된다는 것은 온전하게 된다는 것이다.

▲개개인의 변화를 문화적인 변화와 어떻게 연결시킬 수 있는가.

(솔락 시바락사)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약하다는 것. 완벽하지 않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좋은 도반을 만나야 하고 서로 배워야 한다.

(통 카카다) 어떤 공동관심사를 얻기 위해서는 본질을 일으켜야 한다.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힘을 모아야 하고, 협상을 해야 한다. 모든 사람의 이해를 위해 힘을 사용해야 하고 정의를 위해 비폭력적인 행동을 취해야 한다. 폭력은 부정과 불의를 낳을 뿐이다.



△23일 서울 프레스센터 20층에서 열린 공개 심포지엄에서는 솔락 시바락사와 로카미트라 강연에 이어 전체토론이 이뤄졌다.

## 좋은 도반 만나 서로 배우고 보완

### ‘북한산 도로’ 한국·세계 모두 파괴

▲한국인들은 청소년 뿐 아니라 어른들도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다. 또 이를 해소하기 위해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한다. 이런 이증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법륜스님) 아이들이 스트레스를 받는 것은 '너무 많은'의 문제인 것 같다. 너무 많이 배우고, 먹고, 관심을 받는다. 해결책은 버리는 것이다.

(솔락 시바락사) 현대는 소비주의가 팽배해 있다. 자본주의는 더 많이 가질수록 좋다고 가르치고 있다. 작은 것부터 출발해야 한다. 우리 모두가 스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아이들에게 가르쳐 줘야 한다.

▲새만금 갯벌이나 핵폐기물 문제, 북한산 관통도로 문제 등 불교환경에

대해 참여불교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솔락 시바락사) 가장 중요한 것은 공공의 인지도를 높이는 것이다. 이를 위해 다른 나라와도 연대해야 한다. 북한산 관통도로는 한국만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를 파괴하는 것이다.

(법륜스님) 변방에서 늘 새로운 혁명이 일어났다. 변방에 있다는 것이 깨달음으로 가는 유리한 조건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내면을 평정시킨 상태에서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 고통을 뛰어넘는 대결정신이 있다면 반드시 변화시킬 수 있다.

▲한반도 위기 해소를 위해 대회에 참여한 15개 국가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통 카카다) 한국의 많은 NGO가 있고 많은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것이 출발점이다. 많은 한국 사람들이 NGO 활동에 참여하길 바란다. 또 북한 주민들의 인식을 재고시키기 위한 메시지도 전달해야 한다.

(데이비드 채플) 미국 정부는 한국 사람들의 목소리를 경청할 필요가 있다. 미국에게 가족인 북한을 해치지 말라고 얘기해야 한다.

(법륜스님) 부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를 생각했다. 전쟁의 위험이 고조되면 한 달이든 두 달이든 피약벌에 앉는 것으로 부타의 길을 따르겠다.

글= 남동우 기자 dwnam@buddhapia.com 사진=박재원 기자 jwpark@buddhapia.com

## 700여 참석자 망배단서 평화 명상

### 인간행사



△자유의 다리에서 참가자들이 평화를 염원하며 철조망에 현화하고 있다.

“이제 우리는 어둠의 장벽을 허물기 위해 힘을 가지려고 합니다. 몸을 편안하게 한 다음 호흡에 집중하세요. 부처님의 형상을 떠올려 보세요.”

한반도 분단을 상징하는 임진각. 수일 위제 스리와디나(사르보다야, 스리랑카)의 지도로 평화명상이 시작됐다.

대회 4일째인 23일, 2003 참여불교 세계대회에 참석한 15개국 150여명과 각 지역에서 도착한 550여명의 불자들은, 부처님이 전쟁을 막기 위해 뜨거운 피약벌 아래 앉았던 것처럼 임진각 망배단 앞에 앉아 평화명상을 했다.

행사는 11번째 대회 개최를 상징하는 평화

의 종 11번 타종을 시작으로 법륜스님과 박광서 대회 공동조직위원장의 자술리기, 하유스님(안동 용수사)의 밭고 손으로 진행됐다. 또 평화의 꽃 헌화, 철조망을 바라보며 삼귀의(테라바다)·반야심경(마하야나), 우리의 소원은 통일·아리랑을 부르는 다함께 노래가 차례로 이어졌다.

행사 마지막은 대동놀이. 참석자들은 지난 여름을 뜨겁게 달궜던 ‘대한민국’과 ‘오 필승 코리아’를 ‘월드피스(World Peace)’와 ‘오 피스 코리아(Oh Peace Korea)’로 바꿔 부르며 떠나갔다.

임진각= 남동우 기자 dwnam@buddhapia.com

## 비구니 사찰 둘러보며 여성차별 지적

### 운문사 순례



△비구니 사찰 청도 운문사를 둘러보는 대회 참가자들.

“태국에도 분명 비구니가 존재합니다. 그러나 인정받지 못하고 있지요. 태국의 비구니들은 비구와 자리를 같이 할 수도 없고, 악수를 하는 등 접촉도 불가능하며, 같이 음식을 먹을 수도 없을 만큼 큰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태국에서 온 마에지(Maeji, 태국에서 여성수행자를 지칭하는 말) 추티파 타파수띠(Chutipaa Tapasuthi)는 한국의 대표적 비구니 사찰 운문사주지 흥륜사를 방문하며 부러움과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또 사찰 이곳저곳을 세심하게 바라보는 눈길에 예사롭지 않았다.

24일 한국사찰 순례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운문사를 찾은 대회 참가자들은 사찰 안내를

받은 운문사승가대학 중장 운산스님의 설명이 이어질 때마다 탄성을 질렀다. 분명 한국불교 내에서도 비구니 스님들에 대한 성차별이 존재하지만 이보다 더 못한 환경에 처해있는 동남아 불교국가에서 온 참가자들의 눈엔 오직 부러움의 대상일 뿐이기 때문이다.

운문사를 견학한 후 추티파는 “태국에서도 비구니들이 정식으로 인정받기 위해 나이 어린 여성승가자들의 교육을 시작했습니다. 언젠가는 우리도 한국의 비구니 스님들처럼 정당하게 인정받고 수행할 수 있는 그날까지 정진할 생각입니다”라며 각오를 다졌다.

청도= 박원구 기자 bak09@buddhapia.com

## 공개 심포지엄

●갈등과 위기의 시대, 평화와 화해의 길

“정신적인 삶을 산다는 것은 사회정의의 실현을 위한 것이다.”

솔락 시바락사(INEB 고문, 태국)는 23일 프레스센터 20층에서 열린 공개 심포지엄 중 ‘갈등과 위기의 시대, 평화와 화해의 길’ 기조강연에서 “사회를 변화시키려면 개인부터 변화해야 한다”며 “정신적인 삶을 산다는 것은 사회정의의 실현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솔락 시바락사는 “종교를 뛰어넘어 깨달음의 문화를 장려해야 한다”며 “지혜와 명상, 보시를 통해 서로의 고립감을 극복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우리는 주위의 사람들이 굶어죽고 있는데도 대형불사에 많은 돈을 쏟아 붓고 있다”고 지적하며 “단순한 삶을 영

## 남북한 ‘사람과 사람의 대화’ 필요

### ‘불교전파=인류에 봉사’ 믿음 가져야

위해 다른 사람들이 고통에서 자유롭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한반도 위기와 관련해 솔락 시바락사는 “정부간의 대화보다 사람과 사람과의 대화가 필요하고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배웠다”며 “모든 정부 위에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북한 사람들도 고통을 겪고 있지만 대화를 나누면서 고통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대 자본주의에 대해서도 “자본주의는 포화상태에 있으며 미움과 욕심을 유도하고 있다. 현대 교육제도는 물질적인 성공만 가르치고 정신적인 세계를 파괴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대를 뛰어넘는 불교적 통찰 “불자라면 불교를 전파하는 일이 곧 인류에 봉사하는 것이라는 믿음을 가져야만 한다(암베드카 박사).”

로카미트라(BMSG, 인도)는 “시대를 뛰어넘는 불교적 통찰” 기조강연에서 암베드카 박사가 비판 것은 “사회적으로 미친한 계급에 있는 사람들에게 불법을 전하는 것”이었다고 밝혔다.

로카미트라는 25년간 인도에서 활동하면서 얻은 몇 가지 교훈과 고무될 만한 일들을 소개했다. 그는 먼저 “묵상”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직접 불법을 체험함으로써 삶이 변화되는 것을

봤다”며 “묵상으로 우리가 처해있는 상황에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야말로 암베드카가 일으키고자 한 불법의 정수”라고 단언했다.

그는 사회적 전망을 통해 “부처님께서 행하신 가장 위대한 일은 세계는 사람의 마음을 바꾸지 않고서는 절대 개혁될 수 없다고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일”이라는 암베드카의 이야기를 소개하며 “이를 통해 사람들이 긍정적인 미래상을 가지게 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암베드카는 “메타(자비)가 불자 윤리의 기초”라고 말하며 “이는 자유, 평등, 우애라는 소중한 교리의 기초가 된다”고 강조했다. 이중 우애는 인류 모두를 위한 것이어야 하며, 우에 없이는 자유와 평등이라는 교리도 남용되기 쉽다고 얘기했다. 또 “메타를 더 많이 뒤을수록 불자로서의 삶과 일을 더 효율적으로 이끌어 나가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 납골당 설치 및 운영방법 안내

사회문제로 대두된 묘지 문제의 해결책으로 정부에서 추진한 ‘화장 장려 정책’이 효과를 보게 되어 대부분 국민들이 화장 문화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인정함으로써 점차 화장을 하는 수위가 늘어나지만 아직 납골문화가 정착되지 못한 탓에 납골 시설의 공급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납골문화발전과 사찰 납골당의 운영에 도움이 되고자 저희 장안낙원에서는 획기적인 **“사찰 납골 활성화 사업”**을 제시해드리고자 합니다.

### [참여 범위]

- 납골(추모)당 운영에 관심이 있는 사찰
- 납골(추모)당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찰
- 납골 시설 설치부지가 협소한 사찰

### [장안낙원 지원사항]

- 전체시설의 절반을 투자비용 없이 보유가능
- 각종 법률적인 인허가 문제 해결
- 최고 시설의 안전단 저가 보급
- 장안낙원의 분점으로 분양행사 지원
- 각종 제사 유치로 부대수입 기대

초기 기획에서부터 납골시설 허가, 설치공사, 신도확보, 납골당 운영까지 책임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

문의: 031)901-1954, 017-755-1954, 011-276-2135

■ 주 최: 장안사 장안낙원 ■ 협 력: 한국납골문화연구원

# (靈,體) 영,체 이탈법 스님이직접특별지도



## 영, 체이탈이란?

가, 인간의 내면 깊숙이 숨어있는 잠재능력을 자극하여 발달된 능력으로 **영과체**를 분리하여 자신과 타인의 **영적인 문제와 운명적인 것**을 해결하는 기법입니다.

나, **영, 과체**가 분리되면 **유체**든 **무체**든 볼 수 있고 들을 수도 있다. (전생, 현생, 미래도 볼 수가 있다.)

다, 전혀 무관한, 타인을 통하여 자신이나, 또다른 타인의 몸에 빙의된 영가와 선망 조상영가를 볼 수도 있으며 영가와 자유롭게 대화도 하고 영가를 다스릴 수 있다.

라, 스님들께서는 영가천도 및 구명식식 등 산소, 집터 및 기타 운명에 관한 어떤문제도 해결이 가능합니다.

마, 참가조건 : **출가스님만 가능함.(최고의 포교법)**

바, 수업기간 : 단기집 집중반 복식교육으로 단기일내 신명난 **영체이탈법 전문가**로 변신 가능함.

- 일반인도 문의가능함.
- 수고비는 **직접 면담으로 결정함.**
- **스님직통 016-806-6378 / 연 락 처 02-2637-6636**

장소 : 서울시 구로구 구로1동 597-77(지방분도가능함)

# 觀 法 寺

韓國靈,體移脫佛敎儀式研究院  
住持,院長 道先 合掌